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들 ‘균형 발전’ 힘 모은다

협력회의, 광주·부산·대구·울산·전남·전북·경북·경남 8개 시·도 참여
국회의원들과 함께 결의문 채택...광주 AI육성법·전남 특별자치도 요청

광주시와 전남도가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에게 각각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전남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지난 30일 서울 FKI(한국경제인협회)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로,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과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2명 등 100명이 동참했다.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정요건 완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간 광역비자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와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광주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전북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영호남 정치동맹’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 마련을 제안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구와 함께한 덕분에 공항특별법, 달빛철도특별법을 해낼 수 있었다”며 “이제 영호남은 힘을 모아 정치동맹을 맺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인적·물적 자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은 갈수록 활력이 떨어져 소멸을 향해 가고 있다”며 “질체정명의 위기를



지난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상생협력 회의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벗어나기 위해 지방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뒤 전남 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체제는 대한민국의 큰 병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호남 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제도,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는 영호남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전북·대구·부산·울산·경남·경북 등 8

개 시·도가 참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돼 매년 열리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재명 대표 3년 구형에...여 “상식” vs 야 “악의”

국힘 “거짓의 사슬 끊어내야”

민주 “녹취록 편집 공소장 조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에 여야는 극명하게 갈린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녹취록 등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송영환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0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직후 논평을 내고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을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둘러막기를 해 온 것”이라며 “거짓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냈던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

론회에서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거짓 주장을 했다”며 “그 거짓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을 받게 되자 증인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또 언론에 공개된 이 대표의 녹취를 언급하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지적한 뒤 “22년간 계속되는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엄정한 법의 심판이며, 오랜 세월을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0일 “조작된 녹취 하나라도 야당 대표를 위증 교사범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를 주장하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로 검찰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전체 녹취록에는 ‘기억을 되살려서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 ‘안 본 것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등장한다”며 “위증하지 말아 달라’는 말까지도 검찰은 위증교사로 몰아갈 속셈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검찰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교묘하게 편집·발췌한 녹취록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등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에게는 방탄,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에게는 총탄”이라며 “검벌 3년,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대통령, 오늘 興 원내지도부 용산 불러 만찬

대통령실 “국감 앞둔 연례 행사”

‘김여사특검법 재표결’ 앞뒤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베풀며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에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날 만찬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 및 관계자들을 불러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온 연례행사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계속 공개적으로 요

청해온 한동훈 대표는 참석 대상이 아니다.

다만 만찬 시점이 다소 묘하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4일 또는 5일째 잡힐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원내지도부를 상대로 직접 ‘표 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격려 차원에서 만나는 것”이라며 “매년 해왔던 것이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래전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바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주) 법인설립
2011 수출박람회,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유망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주)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